

# David deSilva 박사 , 신약의 문화 세계 , 세션 8, 순수함과 오염에 적합한 히브리어 읽기

© 2024 데이비드 드실바 (David deSilva )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신약성경의 문화세계를 강의하는 Dr. David deSilva 입니다 . 이것은 세션 8, 순수함과 오염에 조화된 히브리서 읽기입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강의에서 우리는 순수성과 오염, 그리고 권리가 서로 이동하는 방식에 관해 우리가 탐구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본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히브리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바울 회중의 순결 규정 중 일부에 관한 더 큰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설교하는 청중은 바울의 설교나 바울의 가까운 동료 중 한 사람의 설교의 결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편지 자체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적은 단서 중 하나는 13장 23 절의 마지막 인사말에서 나옵니다. 저자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볼 때 나와 함께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바울의 팀에 속한 바울의 오른팔 중 한 사람이었던 디모데와의 연결은 이 편지와 이 편지가 다루는 교회 또는 교회들을 바울의 사명과 연결시킵니다.

만약 이것이 히브리서에 관한 강좌라면, 우리는 히브리서에 관한 저자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로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중 특히 저자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통해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서신에서도 사람이나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복음을 받고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바울 선교에서 나오는 본문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23의 이 참조는 Pauline 팀 구성원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것이 바울 회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정결 규례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이미 다루어졌고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바울의 이해에 있어서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의 경계입니다. 다시 바울의 추기경 서신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 바울은 매우 솔직하게 유대인이 지상의 다른 민족과 분리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신 역사에서 과거에 속한다는 생각을 길게 전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등한 조건, 같은 조건으로 하나로 묶는 결정적으로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나는 이 책이 바울의 저자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썼든, 저자는 사람의 지도에 대한 바울의 강조와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람 지도에 일어난 변화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장 14절과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두 그룹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막힌 막힌 담을 허무셨음을 읽습니다.

계명과 법조문과 함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또한 그 회중의 성령 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회심 경험의 일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분배를 누려왔습니다.

또한 저자는 그들이 성령의 몫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령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또한 사도행전 10장 11절과 15절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도 성령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주신다는 강조점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는 사람들의 오래된 순수 지도의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 기록하듯이, 이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주님께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이러한 순결 지도의 재작성을 확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새 백성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이 존재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다면, 그 경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순결한 규례는 사라지고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제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 기독교가 식사 규정의 필요성을 거부하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과 별도의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별도의 유대인 기독교인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거부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에서 그 내용이 아주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록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바울 자신과 바울 선교회 회원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 계속해서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아이돌과의 물질적, 언어적 연관성에서 정말로 분리되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라는 주제가 떠오르자마자, 그것은 기권해야 할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 즉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백성과 우상 숭배 행위 사이의 경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존해야 할 경계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의 또 다른 분명한 표시였던 안식일 준수와 권리로서의 할례조차도 바울과 그의 사명에 관한 한 그리스도의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더 이상 규정적인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일에 관해 기록할 때, 그가 관심을 두는 안식일은 이 세상에서

매주 일곱째 날의 휴식이 아닙니다. 이 영역 너머에서 영원히 누리는 안식일이다.

그곳은 하나님이 안식하러 가신 곳,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넘어선 신의 영역입니다. 그곳은 하늘 본향이요, 영존하는 성이며, 하나님의 총만한 임재가 거하는 하늘 영역입니다. 앞서 말한 모든 종류의, 바울의 사명 내에서 순수성과 오염 문제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 우리는 여전히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순수성 언어가 사용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과 비기독교인(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이의 새로운 경계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방식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거룩한 자들, 성화된 자들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일종의 고독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이며 히브리서 전체, 예를 들어 6장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교회들이 서로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계속해서 섬기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폐회 인사에서 그는 청중들에게 모든 성도들, 모든 거룩하게 된 이들, 모든 거룩한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심지어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되는 자, 다 같은 근원에서 난 자, 곧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대해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별되고, 성화되고, 일종의 의식 행위를 겪는 것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비록 그 의식이 완전히 비유적으로 이해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보다 훨씬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고 깨끗해지고 성화되어 하나님께 속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재되지 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의 주요 취지인데,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던져버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옛 언약 하에서 공간의 지도가 침범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스라엘 평신도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과 공간의 지도에서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었고, 그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편은 생명력 있는 기도 생활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리고 외경에 대한 또 다른 광고를 하자면, 그 안에 있는 몇 가지 기도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의 중요한 기도 생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멈춰서 다른 사람들, 심지어 한 사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지상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합당하고 성화되고 거룩해졌습니다. 지성소는 어쨌든 모형일 뿐이지만 실제로 신의 영역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실제적인 면전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주요한 돌파구입니다. 하지만 이 특정 프레젠테이션의 현재 위치로 돌아가기 위해 저자가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몇 가지 텍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0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구절 뒤인 10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자는 여기서 본질적으로 일종의 정결 예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성화 예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만이 성소에서 봉사하도록 성별하는 성결 의식을 거쳤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와는 달리,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의 죽음을 예수를 신뢰하는 전형적인 인간을 변화시키고 성화시킨 것으로 본다. 예수님 안에서 그들 모두가 함께 그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실제 임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 저자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의 기본 전제, 즉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기본 전제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신자의 양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자체에서도 신자의 죄를 결정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황소와 염소의 희생이 아닌 예수의 죽음에 적용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뿌린 재로 육체의 정결함으로 더럽혀진 자들을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이의 피야 하리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나이까? 여기서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적 정화와 내적 정화 사이의 이분법을 상정한다. 또한 그는 레위기 율법 하에서 동물 제사를 외부 오염을 배려하고 처리하는 행위로 보지만 내부 오염은 처리하지 않는 행위로 본다. 그는 예수께서 자신을 바치신 것보다 더 나은 희생, 즉 그분의 완전한 순종의 행위가 다소 소박하게 말하면 훨씬 더 큰 효능을 지닌 의식의 세제라고 주장합니다.

깊은 곳까지 깨끗하다는 것은 그것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는 외부의 깨끗함, 하나님과의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장소, 하나님 자신의 공간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전체적인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 천국 그 자체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지난 강의에서 접했던 신성한 공간과 인물의 지도를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전 지도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정신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전의 지도와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으로 무장되어 성전의 어느 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들의 지도가 나타내는 하나님께로의 단계적 접근을 알고 있고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이 유대인 성찰, 즉 구약에 대한 유대인 기독교 성찰의 아주 새로운 단계를 나타내는 것 같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지도가 제시되고 지속된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임재에 접근하는 데 대한 제한을 초월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스러운 공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경험적 기초가 아닌 성경적 기초를 바탕으로 그것들을 엄격하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 관해 말하는 모든 것은 성막과 장막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이 글을 쓰는 당시에 존재했던 아름다운 대리석 사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과의 효과적인 중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차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실제로 제2성전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처럼 히브리서의 저자도 성막이나 성전을 하늘 성전의 모형으로 여겼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의 저자와 같은 사람들은 장과 구절의 참조 측면에서 순간적으로 나에게 빠져 있는 출애굽기의 한 구절을 보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만물을 만드라 산에서 네게 보인 모형대로라. 나는 출애굽기 2540을 말하고 싶지만 그것은 나에게 일종의 주사위 굴림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읽는 유대인들은 좋습니다. 모세에게 청사진이 아니라 하늘 성전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희생과 중재가 행해지는 지상 공간에서 그 모델을 만드는 방법에 관해 지시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지상 사본에서 일어나는 중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막 자체에서 일어나는 증보에 관심을 갖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그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승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상의 성전은 단지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효과적인 중재는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누군가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재가 제정될 것입니다.

그것은 공간과 인원 에 대한 레위의 지도에서 표현되었던 하나님께로의 접근에 대한 모든 경계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저자는 광야의 성막, 광야의 성막, 그리고 물론 이후의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제도는 결코 사람들의 죄를 단호하게 처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했듯이, 그것은 어느 정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지속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만큼 백성 자신이 깨끗하고, 충분히 깨끗하고, 거룩해 질 수 있도록 그러한 죄를 단호하게 처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성한 공간이 허용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뒤를 돌아보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종의 상징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실현되는 진정한 지성소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커녕, 땅에 있는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 저자는 10장 4절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것은 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할 때 할 수 있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

내가 그것을 너희 생명을 위하여 제단에서 속죄하려고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는 생명으로서 속죄하는 것은 피니라. 그러나 저자는 유대 민족의 관습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희생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민족에게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는 특히 연례 속죄일에 동물 희생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그 반복 자체가 그 무력함을 드러낸다고 암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적으로 묻습니다.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그는 제거해야 할 가장 필요한 오염은 인간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자가 외부 정화에만 좋은 권리와 훼손의 문제라고 생각한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러한 대담한 주장을 합니다. 하늘의 지성소에 속한 것이므로 레위 지파 대제사장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다.

그러므로 속죄일에 광야의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백성을 대신하여 결정적인 정결을 행하기 위해 일어나야 할 일에 대한 일종의 모델이자 예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923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의 사본, 즉 지상의 성소의 사본은 황소와 염소의 피와 같은 것으로 정결케 되어야 했지만, 하늘에 있는 곳 자체는 필요했습니다. 이보다 더 나은 제사로 정결함을 받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그 깨끗함을 가져오는 죽음 이라고 그분이 제시하실 것입니다 .

더욱이 저자는 레위 제사장들 자신도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저자의 출발점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 숭배를 뒷받침하는 일반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인간 가운데서 취한 모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인간을 대신하여 임명되었음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대제사장 자신의 책임은 그가 백성을 대신하여 죄를 바치기 전에 먼저 자신과 가족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묘사된 대로 매일 드리는 제사와 속죄제의 날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에 대한 규정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된 동물은 백성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시므로 그 자신 안에 아무런 오염도 없으시므로 질적으로 더 나은 중보자이십니다. 제사장이나 중보로 세움을 받았으나 족보에 따라 세움을 입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를 더욱 거룩하게 하려고 다른 지파와 구별된 지파 곧 레위 지파에서 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세움을 입은 자라 불멸의 삶을 바탕으로 한 사제로서. 그리고 물론 여기서 저자는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스라엘 내부의 분화와 위계 체계, 즉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레위를 구별하는 체계, 그리고 그 안에서 레위 가문 내의 제사장 가문의 기초에 신학적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이제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백성을 성별하는 행위, 일반 백성을 취하여 거룩하게 하여 한때 성별된 제사장들과 심지어는 성별된 대제사장만이 누렸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행위로 본다. 그리고 그 이상.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우주적인 속죄일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 읽으면서 이러한 용어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자가 이 언어, 이 의식 템플릿, 속죄일을 십자가형과 그 여파에 대한 해석적 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따라서 작가의 은유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실제로 자신의 피를 담은 대야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신다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와 그의 은유와 해석이 힘과 설명력을 갖는 것은 고대 세계의 정결법전과 정결의 권리와 성화의 권리의 힘과 힘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이미 말한 내용 중 일부와 관련하여 약간 중복되더라도 여기서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 자체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승천을 생각하는 틀로 삼는다. 따라서 속죄일인 음 키푸르(Yom Kippur)에는 특정한 순서에 따라 여러 행위가 일어납니다.

먼저, 몇 가지 사항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레위기 16장을 읽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씻는 의식, 즉 오염을 제거하는 물에 잠기는 의식을 거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와 자기 집안의 죄를 위하여 수송아지 한 마리를 바칩니다.

그는 이 황소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언약궤 뚜껑에 일곱 번 뿌립니다. 그런 다음 염소 두 마리를 여호와 앞에 끌고 제비를 뽑아 그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다시 지성소에 가져다가 다시 뿌린다. 속죄소라고도 알려진 언약궤의 뚜껑. 언약궤의 뚜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 즉 그의 보좌의 기초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염소의 피를 다시 언약궤에 뿌립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른 염소인 살아있는 염소에게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든 죄를 상징적으로 그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염소를 아자젤의 소유로 사막으로 보내 사실상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염소가 방황하면서 백성의 죄와 더러움을 백성에게서, 진에서 멀리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정착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 대제사장은 또 다른 씻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 그는 수송아지의 일부와 첫 번째 염소의 일부를 번제물로 바쳤는데, 적어도 기름은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나는 내가 읽은 부분에서 레위기가 이 시점에서 약간 불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레위기 학자는 아니다.

그런 다음 그 짐승들의 잔해는 진영 밖으로 옮겨지고 불에 완전히 태워집니다. 그들은 캠프 밖에서 완벽하게 보살핌을 받습니다. 이 의식에 따르면 백성과 지성소인 내부 성소 모두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러므로 염소 두 마리. 후자인 지성소의 정결은 모욕과 더러움,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죄가 그들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시하는 위협을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히브리어 저자가 예수의 십자가형과 승천을 해석하는 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언급했듯이 그는 부활에 대해 말하고 추정합니다. 단지 부활 자체가 히브리서 9장과 10장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 의식의 우주적 버전에서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다른 대제사장들과 달리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을 읽습니다. 이는 그가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심이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려 이루셨느니라.

율법은 연약하여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할 자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느니라. 그러나 율법 후에 주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실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렇다면 그것은 일종의 비상관적인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해 바쳐진 첫 번째 동물인 황소와 관련하여 대제사장들이 해야 했던 일을 예수께서는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히브리서 저자는 도시 밖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가 진영 내부가 아니라, 말하자면 진영 바깥이었다는 사실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13장에서 이와 같은 평행선을 그립니다.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로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짐승의 시체는 진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상 예수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한 염소의 역할을 맡으신 평행선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단지 죄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양심에 묻은 죄의 얼룩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의 오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9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의 천국 입성을 이 의식의 일부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얻으셨느니라 그리고 다시 히브리서 9장 23~24장에서 저자는 언약궤 뚜껑에 황소와 염소의 피를 뿌린 사건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스케치가 이러한 의식으로 정화되어야 했지만, 보이는 하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 지성소인 하늘에 있는 것들 자체에는 이보다 더 나은 희생이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모형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물론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다시 나타날 것이고, 그 다시 등장은 속죄일 의식의 효과적인 종결과 성취를 의미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의식에는 재림이 약간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두 번째 나타나시되 하늘의 지성소로 다시 오시리니 죄를 처리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추종자들을 대신한 예수의 순종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완전한 정화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바로 놀라운 성취입니다. 이제 그의 추종자들은 단지 예루살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모델이지만, 문턱을 넘어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10장 19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생겼으니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악한 양심에서 마음을 씻고 깨끗한 물로 몸을 씻었느니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의식적 침수를 수행해야 했던 것처럼, 세례는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정결을 적용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이 단락에서 세례에 대한 명백한 언급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은 더 이상 오염된 금기와 통과할 수 없는 선으로 막혀 있지 않고, 많은 아들과 딸들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제의 귀향이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선두로 들어가신 휘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며, 히브리서 6장의 이미지는 우리가 하늘의 지성소에 일종의 밧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상합니다. 밧줄은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곳으로 가신 우리의 개척자요 선구자이신 예수님과의 연결입니다. 신자들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때, 뒤로 물러서기는커녕 그들 자신도 천국의 문턱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예수님의 봉헌 희생을 통해 건너기에 적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네 번째 강의에서 살펴본 후원과 상호주의 대본과 마찬가지로 순수함과 희생의 언어도 청중이 이웃의 저항에 맞서 목표를 향해 제자도의 길로 나아가도록 격려합니다. 이것은 또한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이제 고의로 죄를 짓는 것으로 정의된다는 사실에도 반영됩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속죄 제사가 없는 토라의 순결 규정에 대한 가정을 받아들이고 사용합니다. 저자는 이제 특별한 관행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 가치가 있는 행위로 장려합니다.

분명히, 레위인의 희생은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한 번의 희생으로 모두 대체되고 초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헌된 백성으로서 제자들은 이제 일종의 제사장 봉사를 제공하고,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 사이의 새로운 교환 매체가 되는 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3장에서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찬미의 제사니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과 나눔을 잊지 말지니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저자는 이제 그날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참된 지성소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의 청중, 즉 그의 헌신된 청중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서로에게 계속해서 사랑과 섬김의 행위를 제공하는 사제의 의무를 맡기셨습니다. 이제 예수 편에 계신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는 교환 언어입니다.

더 일반적인 바울의 사명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적 순결과 오염 코드와 히브리서에 대한 우리의 탐구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순결선을 재검토하도록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특정 선을 초월하도록 도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확신을 실천하거나 실천하기를 거부합니다.

오염을 피하는 것은 깨끗함이나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전략이지만,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거룩함을 반영해야 하는지를 재정의하셨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거룩하여 더러움을 완전히 멀리하고 오염된 사람들을 경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다른 전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반영하는 수단으로 친절을 베푸는 전략입니다. 구문을 보면 레위기 11장의 변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자비로우니 자비를 베풀어라. 예수님의 사역과 그가 탄생시킨 운동에서 이스라엘의 순수함과 오염의 지도가 변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사회, 그리고 우리 나라의 깨끗함과 부정함의 지도, 내부인과 외부인의 지도를 검토하도록 도전합니다. 그러한 선이나 지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새로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계속해서 관찰해야 할 선이 있다.

그리스도의 몸은 거룩합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위해 깨끗해지고 거룩해졌습니다. 오직 거룩한 자의 능력과 위험,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 그것에 접근했던 주의에 대한 깊은 감사만이 예수께서 그의 죽음과 승천과 보냄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에 대한 적절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심.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성별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정결함을 따라 계속 걷고 그리스도의 몸의 거룩함을 보호하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를 수행하도록 어떻게 안내됩니까? 글쎄요, 신약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내부 불화, 권력 유희, 또는 그리스도의 몸 조직의 다른 찢어짐으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의 거룩함을 보호하라고 지시합니다. 세상의 관행, 가치, 목표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비전을 방해하는 한 오염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자신의 위법 행위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의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을 범하도록 이끄는 정욕과 욕망의 충동을 따르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요컨대, 초대 교회와 그 신념, 관행, 저작물이 형성되었던 문화 세계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그 본문을 더욱 진실되게 듣도록 이끄는 것 이상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본문들이 우리 자신의 문화적 가정과 문화적 관행에 어떻게 도전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의 구현을 제한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그 본문들을 보다 진실되게 따를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끈다.

신약성경의 문화세계를 강의하는 Dr. David deSilva 입니다. 이것은 세션 8, 순수함과 오염에 조화된 히브리서 읽기입니다.